

한국 영화 영어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연구*

윤 미 선
(동국대, 서울)

1. 서론

번역은 두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번역가는 목표 문화권 독자 혹은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원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를 번역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특히 영화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영화 대사의 경우 해당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목표 문화권 관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문화적 요소를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번역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더빙은 자막보다 훨씬 더 목표 문화권의 관객을 고려하는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난(Danan 1991: 612)에 따르면 이탈리아어로 더빙된 해외 영화는 외화로 분류되지 않고 ‘이탈리아 버전’으로 집계되며, 이는 더빙이 그만큼 목표 문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일부를 보완하여 확장한 것임을 밝힙니다.

화권의 규범에 따라서 번역되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더빙이 원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를 지우는 ‘문화적 복화술’(cultural ventriloquism)이라는 아래 주장은 더빙 번역이 원천 문화의 요소를 삭제하고 목표 문화의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목표 문화권에 잘 수용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Ascheid 1997).

더빙은 영화 텍스트의 이국적 요소를 지우는 데 대부분 성공한다. 원본의 대사를 지우고 후시 녹음을 함으로써 목표 문화권의 관객에게 문화적 복화술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더빙된 영화는 기존의 영화를 변형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영화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일본에서 생산한 게임기, 대만에서 만든 옷, 독일 차 등의 수출품과 같이 수출국의 문화적 특정성을 지우고 해당 국가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더빙 영화도 앞서 언급한 수출품과 같이 그 기능을 전면에서 내세우며, ‘외국’ 영화이기를 그만두고 하나의 영화로서 기능한다(Ascheid 1997: 39-40).

위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더빙 번역이 목표 문화권에 근접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에서 문화특정항목¹⁾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에 나타나는 문화특정항목을 란자토(Ranzato 2015)가 제시한 문화특정항목 분류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그 번역 양상을 제시한다. 둘째, 란자토(2015)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방법을 원천 문화권에 더 가까운 이국화 전략과 목표 문화권에 더 가까운 자국화 전략으로 분류함으로써 한국 영화 영어 더빙 번역의 거시적 번역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화, 이국화라는 거시적 번역 전략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원천 문화권의 문화특정항목을 전달하고자 하는 번역가의 창의적 노력이 드러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화특정항목의 더빙 번역에서 드러난 다양한

1) 목표 문화권 독자 및 청중에게 생경한 원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는 문화특정항목(culture-specific items)(Franco Aixelá 1996), 문화특정적 레퍼런스(culture-specific references)(Davies 2003), 문화관련어휘(culture-bound terms)(Diaz-Cintas and Remael 2007), 언어외적 문화 지시체(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Pedersen 2011)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CSI’라는 약어로도 통용될 만큼 흔히 쓰이는 ‘culture-specific items’의 축자적 번역인 ‘문화특정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능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문화특정항목

텍스트 내의 문화적인 요소를 분류하고 그 번역 방법을 제시하는 작업은 번역학 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일반적인 분류부터 세분화된 분류까지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Davies 2003; Díaz-Cintas and Remael 2014; Franco Aixelá 1996; Leppihalme 1997; Nedergaard-Larsen 1993; Newmark 1988; Pedersen 2007).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íaz-Cintas and Remael 2014)은 문화특정어휘(culture-bound terms)를 번역가들의 작업을 어렵게 하는 문화, 역사, 지명 등으로 정의했다. 페데르센(Pedersen 2007)은 언어외적 문화 지시체(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량형과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상표명), 직함, 음식, 문학, 정부, 오락, 교육, 스포츠, 화폐, 기술 관련 자료, 기타 등 열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레피할메(Leppihalme 1997)는 문화특정항목을 사람이나 이벤트, 지역, 고유명사 등을 일컫는 명사나 명사구로 한정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비유나 관용적 표현 등 언어적 요소가 문화특정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Nedergaard-Larsen 1993) 역시 존재한다. 특히 비속어와 관용적 표현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영화 대사의 경우에는 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여 문화특정항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특정항목의 분류에 상호텍스트적 요소를 포함한 란자토(2015) 역시 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분류를 주장하였다.

2.2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분류

본 연구에서는 란자토(2015)가 제시한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분류와 번역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화특정항목의 분류법은 서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 예컨대 뉴마크(Newmark 1988)의 문화특정항목 분류 중 하나인 인공물(artefacts)은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íaz-Cintas and Remael 2014)이 제시한 분류법인 지리학적(geographical), 민족지학적(ethnographical),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항목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특정항목은 그 분류가 다양하고 기준이 상이할뿐더러 중첩되는 항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특정항목의 분류는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작업적으로 정의”(이상빈 2019: 187)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빙이라는 영상 번역 모드만을 대상으로 문화특정항목을 제시한 란자토(2015)의 분류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더빙 영화는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생산된 텍스트(Pym 1992)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 문화권 관객의 입장에서 원천 문화, 목표 문화, 제 3의 문화 등으로 문화특정항목 유형을 제시한 란자토의 분류법이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에 정리된 란자토의 문화특정항목 분류는 목표 문화권 관객의 입장에서 문화특정항목을 국가별로 분류한 것으로, 문화특정항목이 실제 세계에 속해 있는지 여부, 실제 세계에 속해 있다면 어떤 문화권에 해당하는지를 목표 문화권 관객의 입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류이다. 다음의 표는 란자토가 분류하여 제시한 더빙의 문화특정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분류(Ranzato 2015)

실제 세계 요소	원천 문화 요소	원천 문화에 속하는 요소 예: 서리, 제사 등
	상호 문화적 요소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에 뚜렷한 관계가 형성된 요소 예: 맥도날드, 산타클로스 등
	제3 문화 요소	제 3의 문화권에 속하는 요소 예: 스킨, 요가 등
	목표 문화 요소	목표 문화에 속하는 요소 예: 추수감사절 등
상호 텍스트적 요소	외현적 인유	문학, 회화, 영화 등 작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 예: 로미오와 줄리엣 등
	내현적 인유	문학, 회화, 영화 등 작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 예: 유명 배우의 목소리 흉내 등

원천 문화 요소는 더빙 영화의 원본이 속한 문화권의 문화특정항목을 말하며,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리, 제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호 문화적 요소는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간의 대화가 형성된 관계”(Ranzato 2015: 66)에서 나온 것으로 이 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원천 문화의 가수가 목표 문화권에 앨범을 냈다든지 원천 문화의 브랜드가 목표 문화에 지점이 있다든지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란자토(2015: 66)는 원천 문화 요소와 상호 문화적 요소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적 요소를 구분하는 데 따르는 주관성(subjectivity)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문화특정항목의 번역이 번역가의 교육의 정도나 개인적인 경험에 좌우되지 경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 문화 요소는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문화에서 유래한 요소들을 일컬으며, 목표 문화 요소는 원천 문화 관객들에게는 이국적이나 목표 문화 관객들에게는 친숙한 요소를 뜻한다.

상호 텍스트적 요소가 실제 세계 요소와 다른 점은 허구의 작품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라는 점이다. 상호 텍스트적 요소의 하위분류에 ‘인유’(allusion)라는 단어가 붙는 점도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 인유는 어떠한 작품의 문화적 전통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소재로 삼는 것으로 인유는 은유 및 비유와는 다르게 “독자가 이를 알아차려야”(성승은 2008: 94)만 의미가 있다. 외현적 인유(overt intertextual allusions)는 명시적으로 상호 텍스트적 요소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현적 요소의 번역 시 번역가가 경계해야 할 것 목표 관객이 이러한 요소들을 모를 것이라고 짐작하는 일명 “무지추정”(presumed ignorance)(Ranzato 2015: 71)²⁾이다. 관객의 수준을 낮게 생각하고 상호 텍스트적 요소를 단순화하거나 자국화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슈퍼마리오’나 ‘모나리자’ 등의 요소는 실제 세계 요소(일본 문화, 이탈리아 문화)에도 포함될 수 있는 상호 텍스트적 요소로 이러한 경우 실제 세계 요소와 상호 텍스트적 요소라는 대분류가 혼동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란자토(2015: 65)는 이들의 경우 실제 세계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부차적인 성격일 뿐

2) 저자가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한 연구자의 번역도 해당 한국어와 유사하게 읽히도록 의도하였다.

이며 본질은 게임 또는 회화라는 ‘작품’이므로 상호 텍스트적 요소에 속한다고 보았다.

인유라는 개념의 핵심이 함축성(implicitness)이라는 측면에서(Pucci 1998)³⁾ 내현적 요소(covert intertextual allusions)는 이러한 인유의 개념에 충실한 문화 특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영화나 드라마를 언급하지 않고 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유명한 대사를 언급하는 경우가 내현적 요소에 해당한다.

2.3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번역 방법

란자토(2015)는 앞 절에 제시한 여섯 가지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번역 방법을 열한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열한 가지의 번역 방법 분류는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íaz-Cintas and Remael 2014)의 영상 번역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음차, 공식 번역, 모사, 명시화, 상위어를 활용한 일반화, 하위어를 활용한 구체화, 대체, 어휘적 창조, 보상, 삭제, 창의적 추가다. 다음의 <표 2>는 란자토의 문화특정항목 분류를 수정한 것으로 각 분류에 대한 예시는 연구자가 분석 텍스트에서 추출하였다.

<표 2> 문화특정어휘 번역 방법

음차	예: 해운대 → Haeundae
공식 번역	예: 뽀로로 → Pororo
모사	예: 다 된 밥에 똥물 끼얹기 → dumping shit on the cooked rice
명시화	예: 콩밥 → a proper taste of prison
상위어를 활용한 일반화	예: 면허증, 주민증, 학생증 → IDs
하위어를 활용한 구체화	예: 과자 → cookies
대체	예: 독버섯 → virus
어휘적 재창조	원천 텍스트에 활용된 신조어를 번역하기 위해 목표 텍스트에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경우

3) 함축성이 인유의 핵심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란자토(2015)는 함축성이 인유의 특성인 점에는 동의하나 작품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외현적, 작품을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경우는 내현적이라는 분류를 적용하였다.

보상	예: 위패 → (‘위패’는 번역하지 않고) 다른 문장에서 funeral을 추가
삭제	예: 맥심, SK 텔레콤 등
창조적 추가	예: 시체가 퐁퐁 불었어 → she croaked like a dead fish

란자토의 분류 중 공식 번역(official translation)은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2014)의 분류에 없는 번역 방법으로, 한 형태로 굳어져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문화특정항목의 번역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번역가가 검색을 통해 공식 번역을 ‘검색’하는 것이므로 번역 방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Ranzato 2015: 85)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분류에 포함시킨 이유는 문화특정항목에서 상호텍스트적 항목을 분석하기 위함일 것이다. 위의 분류 중 어휘적 재창조는 원천 텍스트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를 번역하기 위해 목표 언어에 없는 어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며, 란자토(2015)의 분석 텍스트에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번역 방법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텍스트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는 영어 더빙과 자막이 모두 수록되었으며 21세기에 북미로 수출된 한국 영화 DVD의 지역코드 1로 데이터를 한정하였다. 지역코드란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에 걸려 있는 제한 사항으로, DVD의 판매와 수요 관리 및 지역 영상 산업 보호 등의 취지를 가진 일종의 국제 규약이다. 지역코드 1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뜻하며, 한국 영화의 영어 더빙은 지역코드 1 DVD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데이터의 포맷을 DVD로 제한한 이유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모두 수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표 3〉 분석 텍스트 목록

영화 제목 (한국어)	영화 제목 (영어)	DVD 출시 연도	상영시간
쉬리	Shiri	2002	125분
올드보이	Old boy	2005	120분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2005	132분
태극기 휘날리며	Tae Guk Gi: The Brotherhood of War	2005	148분
괴물	The Host	2007	119분
해운대	The Tidal Wave	2010	120분
아저씨	Man from Nowhere	2011	148분
악마를 보았다	I Saw the Devil	2011	142분
광해: 왕이 된 남자	Masquerade	2016	131분
명량	The Admiral: Roaring Currents	2016	126분
베테랑	Veteran	2016	123분
부산행	Train to Busan	2017	118분

위의 <표 3>은 분석 텍스트의 출시 연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분석 텍스트 중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해운대」,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베테랑」, 「부산행」은 국내에서 천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이며, 나머지 5편 역시 작품에 대한 관객 평가가 높거나 한국 영화사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영화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각각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이라는 명망 있는 감독의 작품이며, 영화 「아저씨」는 개봉 연도를 기준으로 흥행작 1위를 기록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2021년 10월 기준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스코어 7.8점(119, 760명 평가)으로 평균 6.6점⁴⁾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영화 「쉬리」는 “한국영화는 흔히 쉬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이해리 2019)라고 할 만큼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영화이므로 분석의 가치가 충분하다.

3.2 분석 방법

분석 텍스트인 지역코드 1 DVD는 한국 내 유통 및 판매가 되지 않으므로 해외 DVD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다. 열두 편의 DVD를 모두 확보한 후에는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로 변환하였다. 한국어 대사와

4) 유, 칸터와 커밍스(Yoo, Kanter and Cummings)에 따르면, 1911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제작된 영화 4,052편의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평균 점수는 6.6점이다.

영어 대사의 기록은 각각 대본 필사와 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국어 대사는 한국어 대본을 구하여 필사한 후 원본을 들으며 수정을 거쳤으며, 영어 더빙 대사는 더빙본을 들으며 전사를 하였다. 대사 분절의 단위는 ‘대화의 순서’(dialogue turn)로 하였다. 등장인물 한 명이 장광설로 이어가는 대사의 경우 분절의 단위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나, 문화특정항목의 더빙 번역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표를 저해하는 지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열두 편의 한국어와 영어 대사를 대화의 순서 단위로 입력한 스프레드시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문화특정항목의 미시적 번역 방법은 2.3에 제시한 란자토의 분류를 활용하였고, 거시적 번역 전략은 페테르센(2011: 76)의 문화특정항목의 거시적 번역 전략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누었다.

〈표 4〉 문화특정어휘의 거시적 번역 전략

이국화 전략	혼합 전략	자국화 전략
음차 모사	창조적 추가 어휘적 재창조 보상	삭제 대체 명시화 구체화 일반화

음차가 이국화 전략의 극단, 삭제가 자국화 전략의 극단에 있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번역 방법은 양 극단을 이은 선의 어딘가에 위치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편의상 위의 <표 4>와 같이 구분한 분류를 적용하여 분석 텍스트의 문화특정항목의 거시적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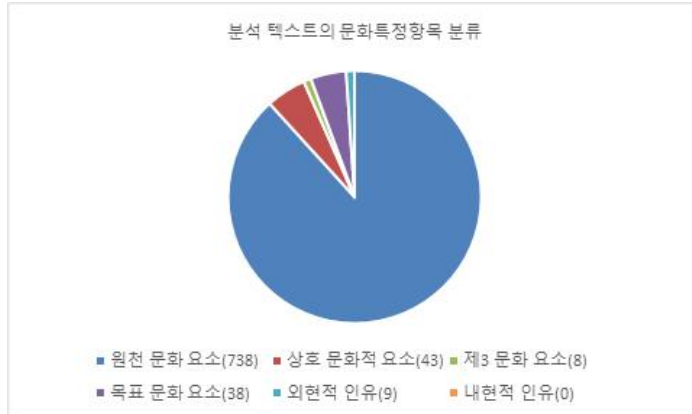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분석 텍스트의 문화특정항목 분류와 번역 방법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살펴본 뒤 자국화, 이국화 및 혼합 전략의 사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문화특정항목의 분류와 번역 방법

다음은 란자토(2015)의 더빙 문화특정항목 분류에 따른 분석 텍스트의 문화 특정항목의 구성을 제시한 도표다.

그림 1 분석 텍스트의 문화특정항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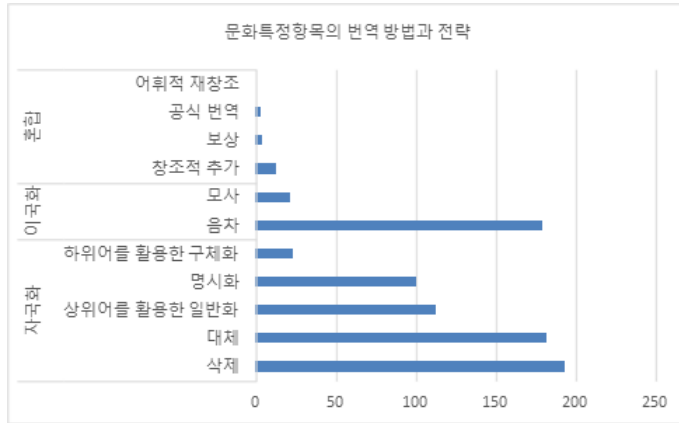


위의 도표를 기반으로 한국 영화에 나타난 문화특정항목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영화에서 추출한 문화특정항목 836개 중 738개가 원천 문화 요소로, 상호 문화 요소(43개)나 제 3의 문화 요소(8개), 목표 문화 요소(38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분석 텍스트에서 상호 텍스트적 요소가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란자토(2015)의 텔레비전 드라마 더빙의 문화특정항목에서 상호 텍스트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⁵⁾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영화 「올드보이」에 나타난 노래 ‘보고 싶은 얼굴’, 「살인의 추억」의 가수 ‘유재하’, 「살인의 추억」의 ‘참새 시리즈’ 등의 외현적 인유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목표 문화권의 문화특정항목으로 대체되었다. 상호 텍스트적 요소 자체도 9회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더빙 번역 역시 삭제나 대체 방법이 주로 쓰였다.

5) 란자토(2015)의 분석 결과에서 외현적 인유는 텔레비전 드라마 「프렌즈」, 「라이프 온 마스」, 「식스 핏 언더」에서 각각 22%, 19%, 11%를 차지한다.

문화특정항목의 미시적 번역 방법과 거시적 번역 전략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법과 전략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법과 전략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삭제와 대체, 음차를 합한 수치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할 만큼 많이 활용된 더빙 번역 방법으로 드러났다. 자국화 전략에 해당하는 삭제(194회)와 대체(182회)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이국화 전략인 음차(180회)가 뒤를 따랐다. 둘째, 자국화 전략 방법인 삭제와 대체, 일반화, 명시화 및 구체화가 전체 614회 활용되어 이국화 전략 방법인 음차(180회)와 모사(22회)를 합한 수치보다 세 배 이상 많이 쓰였다. 이로써 분석 텍스트의 거시적 번역 전략은 이국화보다 자국화가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4.2 자국화 전략

자국화 전략에는 삭제, 대체, 상위어를 활용한 일반화, 하위어를 활용한 구체화, 명시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번역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삭제와 대체의 사례에 대해 먼저 알아본 뒤, 일반화, 명시화 및 구체화의 사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다.

4.2.1 삭제

문화특정항목의 삭제는 지명과 상표명, 은어의 더빙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예로 지명의 더빙 번역에 대해 살펴보면, 분석 텍스트에는 영화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시나 군, 구, 읍, 면, 리, 동 등 한국의 행정 구역이 등장한다. 영화의 이야기 전개와 관계없는 지명은 대체로 삭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 대사에 등장한 지명 149개 중 76개는 삭제되었으며 이는 보존된 횟수(58회)보다 많다.

심지어 장소가 영화의 제목인 「해운대」의 경우에도 ‘해운대’라는 지명이 한국어 대사에 총 15번 등장했는데, 해운대라는 지명이 그대로 영어 더빙본에 포함된 것은 3번에 불과하다. 9번은 삭제되었고, 나머지 3번은 ‘the city’ 혹은 ‘this beautiful city’로 일반화하여 제시되었다. 아래 예시는 영화 「괴물」에서 한강 둔치에 괴물이 등장했을 때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사의 원본과 더빙 번역본이다.

〈표 5〉 영화 「쉬리」의 지명의 삭제 예시 대사

경부고속도로에는 조금 교통량이 늘어	Next station, Han River. Next
뉴스 서 서울 쪽으로 서울에서 죽전까지 속	station, Han River. Please exit to
도가 떨어지고, 부산 방면으로는...	the right.

위의 대사는 버스 내부의 승객들이 괴물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해가는 한강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교통방송의 내용이다. ‘서울’, ‘죽전’, ‘부산’ 등 한국인 관객이라면 익숙한 지명이지만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는 낯설 수 있는 지명일뿐더러 플롯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이다. 영어 더빙본의 번역은 “다음 정류장은 한강, 다음 정류장은 한강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Next station, Han River. Next station, Han River. Please exit to the right)로, 화면에 보이는 ‘한강’이 등장하여 한국의 지명을 전달하는 대신 시각적 정보와 조화를 이루는 쪽을 선택하였다.

상표명의 문화특정항목 삭제 사례는 영화 「쉬리」에서 남북축구시합이 열리는 경기장 앞 신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탈취한 무기를 남북축

구시합 때 사용하여 테러를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경기장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은 북한특수부대원 중 한 명이 경기장 입구에서 동태를 살피는 중이다.

그림 3 영화 「쉬리」의 문화특정항목 삭제 예시(Maxim)



위 그림 3의 오른쪽에 보이는 ‘MAXIM’은 커피 시음대로, 액체 형태인 무기 CTX의 반입 우려 때문에 경기장에 “물 한 방울 들이지 않았다”라는 고국장의 말과는 상반되는 설정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의 조달과 연관이 있다. 영화 「쉬리」 이전에는 순수 제작비가 20억 원이 넘어가는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으나 「쉬리」는 순수 제작비 25억 원으로, 홍보비를 포함하면 총 30억 원에 달했다(김익상, 김승경 2018).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중 하나가 PPL을 통한 “마케팅 툴의 적극적인 활용”(김익상, 김승경 2018: 208)이다. 무려 30개가 넘는 협찬사 중 하나가 바로 위 그림에 등장하는 맥심(MAXIM)⁶⁾이다.

6) 「이게 영화야? 광고야? 영화 속 간접광고 PPL」 (홍은영 2000)

〈표 6〉 영화 「쉬리」의 문화특정항목 예시(Maxim) 대사

관측원	커피를 아는 분은 맥심을 드시거든요.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 맥심…	I'm sorry. No beverages are allowed in the stadium.
입장객	아니, 이것 보세요. 술도 아니고 커피 가 왜 안 된단 말입니까.	I understand that we can't bring liquor in here, but why not coffee?
검색요원	경기장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I'm sorry, sir. That's the rule.

위의 <표 6>의 첫 번째 줄 한국어 대사는 “커피를 아는 분은 맥심을 드시거든요.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 맥심”으로, 원본에서는 이 대사가 또렷하게 들리며 화자인 관측원의 모습 역시 화면에 보인다. “커피를 아는 분은 맥심을 드시거든요”라는 대사까지는 관측원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거나,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패닝하면서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 맥심”이라는 대사는 오프스크린으로 들린다. 영어 더빙본에서는 <표 6>의 원본의 관측원 대사가 “죄송하지만 경기장에 음료 반입은 되지 않습니다”(I'm sorry. No beverages are allowed in the stadium)로 변경되었다. 북한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려는 무기의 특성상 경기장에는 음료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극의 전개상 자연스럽다. 영어 더빙에서는 PPL 상표를 드러내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대사를 그대로 번역하기 보다는 흐름에 맞는 대사로 변경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영어 더빙본의 변경된 대사는 그림 3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MAXIM’이라는 큰 로고와 그 밑의 커피통 등의 시각적 정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오프스크린으로 들리는 한국어 대사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 맥심”은 영어 더빙본에서 완전히 생략된다. 이밖에도 영화 후반부에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에 삽입된 ‘SK 텔레콤 소리샘’이라는 PPL 역시 삭제되었다.

은어일 경우 더빙 번역에서 대부분 삭제되었다. 영화 「아저씨」의 대사에서 등장한 은어 중 마약을 뜻하는 ‘작대기’⁷⁾, 장기적출을 뜻하는 ‘통나무 장사’ 등의 은어는 영어 더빙본에서 삭제되었다. 영화 「명량」에서 등장한 ‘주둔지 소개’라는 용어 역시 더빙본에서 삭제되었다. 왜군이 주둔지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7) 한 작대기는 주사기 한 개에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양을 뜻하며 통상 0.7g에 해당한다(출처: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변호사의 블로그, 「마약 분야 전문 자료」 마약 은어 6).

마을을 소탕하는 행위를 일컫는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통상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해당 영화에서만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⁸⁾

4.2.2 대체

문화특정항목의 대체는 사람의 이름 등의 고유명사, 화폐, 도량형 단위의 번역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문화특정항목 대체의 첫 번째 사례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시체의 잘려나간 귀를 발견한 아이가 친구를 부르는 장면이다. 아래 그림 4를 보면 로우 앵글⁹⁾로 동수를 올려다보듯이 촬영되어 아이의 벌린 입이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문화특정항목 대체 예시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림 4의 등장인물이 하는 대사는 “동수 형! 동수 형!”이나 실제로 원본을 들으면 “동수야! 동수야!”에 더 가깝다. 이처럼 들리는 이유는 멀리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설정이므로 등장인물이 성량을 키우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림 4의 영어

-
- 8) 검색 사이트에서 ‘주둔지 소개’로 검색했을 때 영화 「명량」의 인용 외에 학술지나 기타 언론에서 해당 영화의 언급 없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검색일 2021년 11월 6일 기준).
- 9) 로우 앵글은 피사체를 더 높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관계의 수직성을 드러내는데 유용하다. 로우 앵글은 관객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Giannetti 2014: 14-15).

자막에는 그대로 ‘동수’라는 고유명사가 사용되었으나 영어 더빙 대사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Christina! Christina!)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대체는 입 모양 동기화와 관련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영어 더빙본에서 한국어 대사와 동일하게 음절수를 3음절로 맞춘 것은 물론, 모음 ‘a’로 끝나는 이름을 선택하여 등장인물의 크게 벌린 입 모양과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영화 「쉬리」에서 ‘박민성’이라는 이름이 ‘Peterson’으로 대체된 사례가 있다.

문화특정항목 대체 관련 다음 사례는 영화 「괴물」에서 세진과 세주가 통행 금지구역이 된 한강의 매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치는 장면이다. 아래 그림은 세진과 세주의 투 솟으로, 세진은 나이가 어린 동생에게 훔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서리’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그림 5 영화 「괴물」의 문화특정항목 대체 예시



아래 <표 7>의 한국어와 영어 대사를 보면, 한국어 대사에서의 ‘서리’는 영어 더빙 대사에서 모두 ‘로빈 후드’(Robin Hood)로 변경되었다. 서리의 예시를 ‘수박 서리, 참외 서리’로 들면서 설명하는 대사는 “우리는 로빈 후드처럼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We’re becoming legendary)로 처리되면서 로빈 후드가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부연 설명으로 변경되었다.

〈표 7〉 영화 「괴물」의 문화특정항목1(서리) 예시 대사

세주	어차피 훔치는 중인데...	We're stealing from this place, anyway.
세진	세주야.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우린 지금 매점 서리를 하는 거야, 매점 서리. 수박 서리, 참외 서리할 때 서리.	Se-joo... this is not stealing. We're like <u>Robin Hood</u> right now. We're becoming <u>legendary</u> , you know? <u>Robin Hood</u> . Exactly like the story.
세진	너 근데, 서리가 무슨 뜻인지 알긴 아냐? 서리!	By the way, do you know what being like <u>Robin Hood</u> means? Do you?
세진	진짜 모르냐? 세대 차이 심각하구만. 아무튼 서리는 배고픈 자들의 특권이 되겠다 이말이야.	You really don't know? This is a serious <u>generation gap</u> here. A <u>Robin Hood</u> would be a privilege for the poor.

로빈 후드는 13세기경부터 영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의적 영웅으로 구전되며 전해진 가상의 인물로, 소설, 시,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전파되었다(Hilton 1958). 로빈 후드는 한국의 의적 홍길동과 유사한 의적 캐릭터로(전이정 2010: 199) “배고픈 자의 특권”(A Robin Hood would be a privilege for the poor)이라는 대사와도 잘 연결되는 문화특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초반부에 주인공의 대사에서 원본의 ‘꿀’¹⁰⁾이 더빙본에서 ‘카푸치노’(cappuccino)로 대체(조성은 2014b: 27-28)되는 사례 역시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익숙한 문화대체항목으로의 대체에 해당된다.

화폐나 도량 단위 역시 목표 문화권의 단위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화의 ‘원’ 단위는 ‘dollar’로 대체되었으며 이 경우 숫자 역시 환산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길이를 나타내는 ‘센티미터’(centimeter)나 ‘미터’(meter) 역시 ‘피트’(feet)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3 일반화, 명시화 및 구체화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화대체항목이 일반화, 명시화 및 구

10) “지랄들 하고 있네, 뭐 씨발, 꿀, 논두렁에 꿀 발라 났냐? 콧구멍 처박게 전부다, 어?”라는 박두만의 대사가 “I got people having picnicked next to the body while you guys stopped for a fucking cappuccino! Is everybody here an idiot?”로 더빙되었다.

체화되는 사례가 각각 113, 101, 24회 발견되었다. 일반화의 사례부터 살펴보면, 원천 문화권의 관객에게만 익숙한 ‘서울대’, ‘이화여대’, ‘박명수’, ‘김일성’ 등의 고유명사는 각각 ‘the best university’, ‘women’s university’, ‘famous comedian’, ‘their commanders’로 일반화되어 번역되었다. 또한 ‘당산여중’, ‘거북이횃집’, ‘아트박스’와 같은 기관명 혹은 상호는 각각 ‘middle school’, ‘restaurant’, ‘store’로 일반화되었으며, ‘고기전’, ‘꽃감’과 같은 음식명은 각각 ‘meat’, ‘fruit’으로 일반화되어 더빙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명시화는 목표문화권 관객에게 낯선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번역 방법이다. 예컨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주인공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이승만 대독”이라는 한국어 대사는 영어 더빙본에서 “Mr. Rhee Syngman, the current President of South Korea”로 번역됨으로써 이승만이라는 이름 뒤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같은 영화에서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 바란다”라는 대사도 “Raise it high on Mt. Baekdu by the Chinese border”로 번역되어 백두산이 ‘중국과의 국경에 근접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구체화는 목표문화권 관객에게 익숙한 하위어로 변경하는 번역 방법이다. 영화 「아저씨」에서 “발랄한 초딩 하나가 미국 대통령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I kill you라고 써가지고”라는 대사에서 ‘미국 대통령’은 영어 더빙본에서 ‘President Bush’로 구체화되었다. 영화 「괴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화특정항목의 하위어로의 구체화를 잘 살펴 볼 수 있다.

〈표 8〉 영화 「괴물」의 문화특정항목 구체화 예시 대사

가족 탈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은 보 뉴스 균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심 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In the mean time, the <u>World Health Organization</u> and <u>American CDC</u> have referenced to the case of...
--------------------------------------------------------------------	-------------------------------------------------------------------------------------------------------------------------

위의 영화 「괴물」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사이에 잠깐 들리는 뉴스 보도 전문이다. 한국어 원문의 뉴스 보도에서는 한국의 상황이 “심히 우려할” 만하다고 발화하는 주체가 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 더빙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의 CDC, 즉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그 주체로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영화의 또 다른 뉴스 보도에서도 “조금 전 밤 열한 시쯤”이라는 대사가 더빙본에서 “Just a moment ago, at 1:30 p.m. American East Coast Time”으로 번역됨으로써 원본에 없는 ‘미국 동부 표준시’(앞 문장의 밑줄)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4.3 이국화 전략

원천 문화권의 문화특정항목을 목표 문화권의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번역 방법은 음차와 모사가 대표적이다. 본 절에서는 음차와 모사의 사례를 살펴본다.

4.3.1 음차

음차는 지명과 인명 등의 고유명사의 더빙 번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번역 방법으로 나타났다. 지명의 경우, 열두 개의 분석 텍스트에 등장한 지명의 개수는 총 65개, 빈도는 149회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지명은 서울(29회), 부산(29회), 해운대(15회)다. 이 중 지명이 영어 더빙본에서 음차되어 보존된 경우는 총 58회로 한국어 대사와 비교했을 때 약 40%의 지명이 보존되었다. 직함 호칭어를 제외한 고유명사로서의 인명은 총 243회 등장하였으며 이 중 121회가 음차하여 더빙되었다.

인명의 경우 호칭어로 자주 등장하는 경우에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어 호칭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컨대 영화 「괴물」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괴물에게 잡혀간 ‘현서’를 부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현서의 가족들이 현서를 “현서야”라고 부르는 장면은 영어 더빙본에서 모두 “Hyeon-seo-yo”¹¹⁾로 더빙되었다. 사라진 가족을 찾는 만큼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덩달아 등장인물의 입 모양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입 모양 동기화를 준수하기 위해 ‘-야’라는 호격 조사를 떼지 않고 더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1) 한국어 호격조사 ‘-야’가 영어 더빙본에서는 ‘-yo’(-요)에 가깝게 더빙되었다.

4.3.2 모사

모사는 원천 텍스트의 문화특정항목의 어휘적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차용(borrowing)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분석 텍스트에서 모사는 관용구의 번역에 주로 활용되었는데, 예컨대 「살인의 추억」에서 ‘무당 눈깔’을 ‘shaman’s eye’, ‘다 된 밥에 똥물 끼얹기’를 ‘dumping shit on the cooked rice’, ‘찾긴 개뿔을 찾아’를 ‘it’s like looking for horns in a dog’로 더빙한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사가 번역 방법으로 활용된 횟수는 22회로, 분석 텍스트에서는 한정적으로 쓰인 번역 방법이다.

4.4 혼합 전략

본 절에서는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법을 거시적 번역 전략으로 나누었을 때 자국화 혹은 이국화에 포함되지 않는 번역 방법인 혼합 전략의 사례를 제시한다. 어휘적 재창조는 분석 텍스트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창조적 추가와 보상의 더빙 번역 사례를 살펴본다.

4.4.1 창조적 추가

창조적 추가는 문화특정항목을 명시화하는 번역 방법이 아니라 번역가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추가이며, 르페브르(Lefevere 2017)의 ‘다시 쓰기’에 근접한 개념이다. 창조적 추가는 원천 텍스트에 삭제된 문화특정항목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상과는 다르다. 예컨대 아래 예시는 영화 「부산행」에서 번역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 문화특정항목을 추가한 사례다.

〈표 9〉 영화 「부산행」의 문화특정항목 창조적 추가 예시 대사

진희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야, 넌 내가 좋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돼, 니 운명을.	It’s not even on. So, here’s the deal, <u>Romeo</u> . If I tell you I like you, just say “thank you” and be nice. That’s your fate.
----	----------------------------------------------------------	-------------------------------------------------------------------------------------------------------------------------------------

해당 신에서 영국은 내심 진희가 옆자리에 앉은 것이 좋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관심 없는 척한다. 진희는 영국의 이어폰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와 같은 대사를 한다. 이 대사의 영어 더빙본에는 <표 9>의 밑줄 친 ‘로미오’라는 문화특정항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로미오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으로 집안의 반대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인물이다. 영국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어 더빙본에서는 로미오라는 문화특정항목을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화 「쉬리」에서 이장길의 대사로 자신이 왜 뮤지컬을 보다가 잠을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표 10> 영화 「쉬리」의 문화특정항목 창조적 추가 예시 대사

이장길	아버님이 조종사 출신이라 어릴 때 줄곧 비행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 난 <u>소음하고 멜로디</u> 경계가 없어요. 다 소음으로 들리니까. 귀를 자극하는 건 아주 싫어해요.	I really doesn't care for it, cause I grew up near the airport. My dad was a pilot.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u>Jazz and Rumba</u> . It all sounds like noise. Nothing sounds good.
-----	-----------------------------------------------------------------------------------------------------	------------------------------------------------------------------------------------------------------------------------------------------------------------------------------------------------

위의 한국어 원본 대사에 따르면 이장길은 “소음하고 멜로디”의 경계가 없어서 뮤지컬은 물론이고 음악을 감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음’이나 ‘멜로디’는 특정 문화권에 속하는 항목이나 문화적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다. 문화특정항목이 원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더빙본에는 ‘재즈와 룸바’(<표 10>의 밑줄) 간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번역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재즈와 룸바라는 문화특정항목을 창조적으로 추가하여 음악에 둔감한 등장인물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번역가의 판단에 의한 문화특정항목의 창조적 추가로, 등장인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번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창조적 추가의 다음 예시는 영화 「해운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회를 비롯한 관중들이 크게 외치는 구호 ‘마마마’는 “롯데 자이언츠 경기 중 상대 투수가 주자에게 견제구를 던질 때 외치는 응원 구호”¹²⁾로 경기가 늘어질 때 하소연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래 <표 11>에 보면 영어 더빙본에서는 이 구호를

12) 「축구장 울린 ‘부산 갈매기’들의 ‘마마마’ 구호」 (우충원 2008)

그대로 음차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영화 「해운대」의 문화특정항목 창조적 추가 예시 대사

관중	마!!!! 마!!! 마!!!	Ba, ba, ba, ba!
만식	마!	Ba!
관중	마마마마마마마	Bbababababa
연희	마마마마 마!	Babababa, ba!
만식	이 개자숙아!	Son of ba-ba-ba-b-itch!
연희	미쳤나! 아 진짜	Are you insane?

원본의 구호 ‘마마마’는 영어 더빙본에서 ‘bababa’로 더빙되며, 이는 더빙본에서는 ‘마마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식의 욕설 “Son of ba-ba-ba-ba-bitch!”와 창의적인 연결 지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 ‘마’와 영어의 ‘ba’는 초성인 미음과 자음 /b/가 모두 양순음으로, 입 모양 동기화를 잘 맞추면서도 창의적인 번역을 해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영화 「쉬리」에서는 번역가의 창조적 추가에서 유의할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박무영을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요원들은 남한 군인으로 위장하고 화학 무기인 CTX 운반차의 검문을 시도한다. 이 운반 차량은 유중원과 이장길이 타고 있는 국정원 헬기와 무전을 주고받으며 운행 중이었는데, CTX 운반 차량의 콜사인(call sign)¹³⁾은 ‘세라 마이크 원’(Sera Mike 1)이다. CTX를 운반하는 군인들은 국정원 요원들과 무전 교신을 하는 상태였으므로 갑작스러운 검문을 의심스러워한다. 병사가 무전을 할 때 원본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반면, 영어 더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레드독’(Reddog)이라는 콜사인을 쓴다.

13) 무전으로 교신을 시작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완전한 호출 부호, 즉 콜사인(call sign)을 사용해야 한다.

- 출처: 아마추어 무선 운용 윤리와 운용 절차 (2010)

<표 12> 영화 「쉬리」의 문화특정항목 창조적 추가 예시2 대사

무전	(대사 없음)	This is <u>Reddog</u> ...
소령	내 말 안 들려?	Didn't you hear me?
박무영	허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텐데요.	Colonel, I need to see your permit and ID.
운전병	여기는 세라 마이크 윈. 현재 검문중이다. 여기는 세라 마이크 윈. 현재 검문 중이다.	This is Sera Mike 1. Come in, <u>Reddog</u> . We're stopped at checkpoint.

위 <표 12>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한국어 대사에서는 운전병이 콜사인만을 언급하지만, 영어 더빙 대사에서는 앞서 부른 상대방의 콜사인인 ‘레드독’을 부른다. 무선 교신 중에 특정인을 호출할 때는 자신의 콜사인을 먼저 언급한 뒤 상대의 콜사인을 부르는 것이 규칙이므로¹⁴⁾ 영어 더빙에서 국정원 헬리콥터의 콜사인을 추가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영화의 후반부에서 국정원 헬리콥터의 무선에서 다른 콜사인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영화 「쉬리」의 문화특정항목 창조적 추가 예시3 대사

무전1	세라 마이크 윈, 세라 마이크 윈. 천안 22번 신 국도 동산 휴게소	Sera Mike 1, it's <u>Blue Leaders</u> . We're stopping at Dongsan service area.
무전1	정차 대기 바람, 이상	Roger, <u>Blue Leaders</u> . Sera Mike 1 out.

위의 <표 13> 영어 더빙 대사에는 국정원 헬리콥터가 세라 마이크 윈을 호출하면서 자신의 콜사인을 ‘블루 리더스’(Blue Leaders)로 언급한다. 한국어 원본에서는 헬리콥터에서 CTX 운반차량에 보내는 일반적인 통신인 반면, 영어 더빙 대사의 경우 화자가 다르다. <표 13>의 마지막 영어 더빙 대사는 “알았다, 블루 리더스. 세라 마이크 윈 아웃”(Roger, Blue Leaders. Sera. Mike 1 out)으로, 단방향 통신에서 양방향 교신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국정원 헬리콥터가 사용했던 ‘레드독’이 아닌 새로운 콜사인 ‘블루 리더스’를 사용함으로써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더빙 대사에서 번역가 개인의 판단으로 문화특정항목의 창조적 추가를 할 때 일관성이 필요한

14) 각 국가마다 사용할 콜사인의 앞자리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에서 할당한다.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4.4.2 보상

보상은 원천 텍스트에서 문화특정항목이 삭제되었을 때 다른 문화특정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삭제된 항목의 기능이나 효과를 메우려는 번역 방법이다. 란자토(2015: 93)에 따르면 동기화의 제약으로 더빙에는 보상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본고의 분석 텍스트에서도 보상은 4회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예시 역시 등장인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동기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영화 「괴물」의 후반부에는 괴물이 퍼뜨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등장인물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다. 영화 초반에 괴물이 출현한 이후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이나 방역 담당자는 마스크를 항상 쓴 채로 등장하며, 특히 박강두의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박강두에게 마취제를 주사하는 와중에 의사들이 사담을 나누는 장면에서의 원본과 더빙본 대사다.

〈표 14〉 영화 「괴물」의 문화특정항목 보상 예시 대사

의사1	원효대교의 원효가, 그 원혼가? 원효 대사?	By the way, Wonhyo from Wonhyo Bridge, is Wonhyo the great monk?
의사2	웃기고 있네. 그럼 반포대교는 뭐, 반포 대사냐? 어?	<u>He wasn't a monk. He was a priest.</u>

정량의 마취제를 주입했는데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박강두는 계속 딸을 찾으러 ‘원효대교’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박강두가 애 타게 반복하는 원효대교라는 이름에 붙은 ‘원효’의 의미를 궁금해 한다. 등장인물 중 ‘의사1’이 ‘원효대사’가 아닐까라고 추측하자 ‘의사2’가 다른 예시를 들면서 일축하는 상황이다. 위 <표 14>의 ‘의사2’는 “그럼 반포대교는 뭐, 반포대사냐?”라고 반문하는데, 이 대사는 “원효는 수도승이 아니라 성직자야”(He wasn't a monk. He was a priest)로 더빙되었다. 한강의 모든 다리 이름을 승려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리가 없다는 논리¹⁵⁾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포대교’라는

15) 영화에 나온 대사와 다르게 원효대교는 원효대사를 따서 지은 이름이 맞다. 이 장면

예시를 들었으나, 한강 다리의 이름을 알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영미권 관객들에게는 ‘반포대교’는 불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므로 삭제되었다. 대신에 ‘의사2’가 ‘의사1’의 대답에 반대하는 신체동작의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수도승’과 ‘성직자’라는 문화특정항목 추가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취했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의 요약과 논의

분석 텍스트의 문화특정항목은 원천 문화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호 텍스트적 요소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텍스트의 장르가 드라마 보다는 장르물에 치우쳐 있는 점과 개봉 당시보다 시대적 배경이 과거로 설정된 작품이 많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텍스트의 영화 장르는 액션(「쉬리」, 「아저씨」, 「베터랑」), 사극(「광해」) 전쟁물(「태극기 휘날리며」, 「명량」), 호러(「악마를 보았다」, 「부산행」), 드라마(「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재난물(「괴물」, 「해운대」) 등으로 다양하다.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방법은 삭제와 대체, 음차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전체 번역 방법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문화특정항목의 삭제는 지명, PPL로 나온 브랜드의 이름이나 은어의 사용에서 나타났고, 대체는 인명 등의 고유명사, 화폐, 도량형 단위의 번역에서 많이 활용된 방법이다. 문화특정항목 번역 방법을 자국화와 이국화의 거시적 전략으로 분류한 정량적 지표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영화 영어 더빙 번역에서는 대체로 원천 문화를 가능한 지우고 목표 문화권의 문화특정항목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영화 영어 더빙 번역에서 목표 문화권 관객에게 다가기 위한 번역 방법을 다수 차용했다. 하지만 문화특정항목을 단순히 삭제하거나 목표 문화권의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만 번역가의 선택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4.4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창조적 추가와 보상의 방법을 통하여 원천 문화권의 문화

은 환자를 앞에 두고 갑자기 한강 다리 이름의 유래를 궁금해 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주인공의 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항목을 전달하고자 하는 번역가의 창조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빙은 동기화라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창조적 추가나 보상의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고 170쪽에 제시된 ‘마마마’의 더빙 번역 사례는 동기화를 준수하면서도 다른 대사와의 창의적인 지점을 찾아낸 사례다. 이와 더불어 ‘콜사인’ 예시(본고 170-172쪽)는 원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번역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고에서는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의 문화특정항목을 란자토(2015)의 더빙 문화특정항목 분류와 번역 방법으로 분석하고, 분석 텍스트의 미시적 번역 방법과 거시적 번역 전략을 도출하였다. 국내 영상 번역 연구가 자막 분석 위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조성은 2014a: 214-215), 본 연구가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의 문화특정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그 번역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고찰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분석 텍스트의 장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분석 텍스트의 매체를 DVD로 한정했기에 작품 편수는 제한적인 반면 장르가 고르지 못했다. 추후에는 한국에서 제작한 모든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에 영어 더빙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장르를 제한하되 편수는 늘림으로써 좀 더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대표적인 영상 번역 모드인 자막의 문화특정항목을 함께 분석한다면 더빙과 자막이 문화특정항목 번역에 접근하는 차이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영화의 자막과 더빙의 문화특정항목 번역을 비교하는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익상, 김승경 (2018) 「초창기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과정 연구: <쉬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31: 197-225.

- 성승은 (2008) 「영미 아동문학에서의 인유의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6(2): 93-108.
- 이상빈 (2019) 「번역가에 따른 문화 번역의 차이: 한국단편소설의 영어 번역을 기반으로」, 『영어권문화연구』 12(3): 185-213.
- 전이정 (2010) 「고전문학 콘텐츠의 글로벌화 전략과 <홍길동전>」, 『도시인문학 연구』 2(2): 199-217.
- 조성은 (2014a) 「영상 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조성은 (2014b) 'Dubbing and Subtitling in Memories of Murder: Translating Korean Film into English', *STEM Journal* 15(2): 17-33.
- Ascheid, Antje (1997) 'Speaking Tongues: Voice Dubbing in the Cinema as Cultural Ventriloquism', *Velvet Light Trap* 40: 32-42.
- Danan, Martine (1991) 'Dubbing as an Expression of Nationalism', *Meta: journal des traducteurs/Meta: Translators' Journal* 36(4): 606-614.
- Davies, Eirlys E. (2003) 'A Goblin or a Dirty Nose? The Treatment of Culture-specific References in Translations of the Harry Potter Books', *The Translator* 9(1): 65-100.
- Díaz-Cintas, Jorge and Aline Rymael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London: Routledge.
- Franco Aixelá, Javier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Álvarez, Román and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Vol. 8),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52-78.
- Giannetti, Louis D. (2014) *Understanding Movies*, thirteenth edi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 Hilton, Rodney H. (1958) 'The Origins of Robin Hood', *Past & Present* 14: 30-44.
- Lefevere, André (2017)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 Leppihalme, Ritva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Nedergaard-Larsen, Birgit (1993) 'Culture-bound Problems in Subtitling',

Perspectives 1(2): 207-240.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Vol. 66), New York: Prentice Hall.

Pedersen, Jan (2007) 'Cultural Interchangeability: The Effects of Substituting Cultural References in Subtitling', *Perspectives* 15(1): 30-48.

Pucci, Joseph Michael (1998) *The Full-Knowing Reader: Allusion and the Power of the Reader in the Western Literary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ym, Anthony (1992) *Translation and Text Transfer: An Essay on the Principles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Bern: Peter Lang.

Yoo, Steven, Robert Kanter and David Cummings (2011) 'Predicting Movie Revenue from IMDb Data. Available at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374.7761&rep=rep1&type=pdf>

<인터넷 자료>

우충원 (2008. 4. 27) 「축구장 올린 '부산 갈매기'들의 '마마마' 구호」, 『조선일보』, 2021년 11월 7일 검색.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7/2008042700087.html
참고.

이해리 (2019. 7. 3)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쉬리」, 『동아일보』, 2021년 11월 7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190702/96294528/4>
참고.

홍은영 (2000. 8. 18) 「이게 영화야? 광고야?」 영화속 간접광고 PPL」, 『매일경제』, 2021년 11월 7일 검색.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08/103789/>

<기타 온라인 자료>

법무법인 윤강 안세의 변호사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hnseik&logNo=22152260602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아마추어 무선 운용윤리와 운용절차

https://www.iaru-r1.org/wp-content/uploads/2019/10/IARU_%EC%95%84%EB%A7%88%EC%B6%94%EC%96%B4%EB%AC%B4%EC%84%A0-%EC%9A%B4%EC%9A%A9%EC%9C%A4%EB%A6%AC%EC%99%80-%EC%9A%B4%EC%9A%A9%EC%A0%88%EC%B0%A8.pdf

[Abstract]

Transla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in English-dubbed Korean Films

Yoon, Miseon
(Dongguk University, Seoul)

Culture-specific item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describe the translation methods and strategies of culture-specific items adopted by film translators in their English dubbing of Korean film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suggested by Ranzato(2015), culture-specific items and their research methods implemented by translators in response to cultural constraints are mapped out. While micro-level translation methods refer to local solutions to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culture-specific items, macro-level translation strategies deal with global strategies of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macro-level strategies of culture-specific items in English-dubbed Korean films are clearly target-oriented. Furthermore, elimination and substitution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translation methods of culture-specific items. Last but not least, the study highlights the translation method of creative addition and compensation, which require a certain amount of creative effort on the part of translators.

- ▶ Key Words: dubbing, culture-specific items, korean films, audiovisual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 ▶ 주제어: 더빙, 문화특정항목, 한국 영화, 영상 번역, 번역학

윤미선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부 미래인력양성사업팀 박사후연구원

moonyruna@naver.com

관심분야: 영상 번역, 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